

##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막식 축사

최종태 대회장님과 동포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과 국내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1988년에 이곳 부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서울로 살림을 옮겼는데 제가 떠날 때만 해도 부산이 이만한 큰 잔치를 치러 내기가 좀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큰 잔치를 벌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21개국의 정상들을 모셔 놓고, 또 많은 수 행원들과 함께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부산시민들은 이제 어떤 큰 잔치라도 훌륭하게 치러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 21개국 정상들을 모셨습니다만 오늘은 34개국에서 오신 동포 여러분을 모셨으니까 오늘이 좀더 큰 잔치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마음은 21개국 정상들을 모셨을 때보다 여러분을 더 잘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은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여섯 번째 대회인데, 제가 오늘 처음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께

무척 미안한 마음입니다. 사실 좀더 일찍 여러분의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격려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그 대신에 저는 5년 동안 50개국을 순방했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동포 여러분을 일일이 다 찾아뵙습니다. 동포들이 많은 곳에서는 큰 장소를 빌려서 만나고, 동포들이 적은 곳에서는 적은 곳대로 자그마한 방을 얻어서 10명 모이는 모임도 하고, 때로는 수백 명이 모이는 모임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고국 소식도 전해 드렸습니다.

요새 하도 통신이 발달해서인지 고국 소식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냥 제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좋은 모양입니다. 옷을 전부 새로 갈아 입고, 다소 다루기 어려운 한복을 깔끔하게 갖춰 입고 와서 저를 만나는 것을 보고 저로서는 무척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가워하는 것이지, 저 개인이 좋아서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올 때는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을 한국에 모셔 놓고 만나니까 찾아가서 뵈는 것보다 훨씬 더 품도 덜 들고 기분도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마음에 제일 고마운 것은 사실 별로 덕 될 일도 없는데 동포들을 만나면 우리 고국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정을 전해 주십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도 그런 것을 보면 역시 사람이 피를 속일 수가 없고, 고향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깊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상대회에 참석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아무 불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임도 보고 뽕도 판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고국에 와서 고국을 즐기기도 하고 더불어서 불일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시장이 세계 무대로 넓혀지면서 우리 한국경제의 무대도 세계로 뻗

어나가고 있고, 또 개개인의 경제 무대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한국경제가 만나고 또 여러분 상호 간에 서로 만나고 하면서 그래도 누구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경제의 네트워크 또는 거래의 네트워크까지 형성되고 그것이 해마다 자꾸 커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서 가끔 우리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쩔지 쑥스러워하십니다. 그리고 약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앞으로 우리 동포 자녀들은 아마 우리말을 보다 잘 쓰는 세대로 변화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국말을 한다는 것이 모국어라서 의무적으로 배우는 것이지 자기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보면 비단 우리 국민들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이 이제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경제생활에서 훨씬 더 유리한 하나의 도구가 된 모양입니다. 아마 다음 세대들은 한국말을 보다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의 큰 의무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나라가 잘되기를 바라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도 우리나라가 잘되어야 하지만 이제 한국말을 계속 배우면서 새로운 기회를 넓혀 가야 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국경제가 정말 성공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디 나가면 한국경제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만 더 큰 성공을 꼭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보시기에 한국경제가 어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경제가 잘 가고 있다고 보시면 특별히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한국경

제 전망이 좀 어둡다고 보시면 여러분께 전망이 밝다는 말씀을 꼭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실만 말씀드리고 대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이 세계 7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게 체자리 순위가 아니고 낮은 순위에서 많이 꺾충꺾충 뛰어 올라온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좀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우리 와이브로 기술이 제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올해 수출은 3,700억 달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3년 전 제가 여러분의 모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낼 때 수출 2천억 달러 시대가 열렸다고 자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3,700억 달러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숲이 푸른 나라가 선진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활력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품위 있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또 비교적 활력 있는 모습으로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볼 때 그 나라가 선진국이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복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실 별로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 중에서 또는 국민 전체의 총 생산 중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개 일본이나 미국의 절반 정도, 유럽의 3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한번 해외로 나가면 잘 돌아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관해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5년 전까지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전체 정부 예산의 20% 정도였습니다만 올해에는 28%로 8%포

인트 정도 비율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점점 더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희망은 2020년까지 미국, 일본 정도의 수준으로 가고 2030년까지 유럽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대체로 지금 세계 경쟁력의 핵심은 혁신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도 혁신하고 생산기술도 혁신하고 또 기업의 경영방법도 혁신하는 것, 이것이 1990년대 이래 세계 경쟁에 핵심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혁신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UN에서 공공 부문 혁신상을 여러 차례 수상했습니다.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인재가 육성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수한 인재도 교육돼야 되고 또 보통사람들의 직업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 시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무역상의 장벽도 없애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꾸준히 개방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개방하지 않고는 세계 경제 속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있어서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개방을 해 왔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떠밀려서 개방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초에 우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와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비준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떠밀리는 개방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개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경제의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능히 치열해지는 경쟁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고 앞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EU와의 FTA도 체결될 것입니다. 목표는 금년 연말까지 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지체되고 있지만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항상 부담이 됐던 것이 안보 문제입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우리 경제가 잘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제가 대통령이 되는 그 시점에 북핵문제가 불거져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아울러 북·미관계도 긴장이 고조돼서 한국경제에 상당히 부담을 지웠습니다. 이제 안정단계로 들어섰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핵문제는 풀릴 것이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은 순풍에 돛을 단 상태로 잘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외국의 경제 신문을 보면, 또 외국의 어떤 신용평가기관의 말을 들으면 한국은 통일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경제는 통일 비용 문제가 큰 부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통일 비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모두 다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은 독일 통일을 보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독일이 통일하는 것을 보니까 통일 비용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독일하고 우리하고 통일의 과정이 같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초반에 핵문제가 불어지고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몰렸습니다.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됐으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아주 곤경에 처하게 되니까 뭔가 국제 정세를 안다 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붕괴를 믿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북핵 협상과 통일 비용에 관한 얘기도 했고, 우리 한국정부도 통일 비용에 대비해서 재정 건

전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국가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재정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어떤 사람들은 희망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려합니다만, 우려이든 희망이든 간에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붕괴하지 않으면 독일식 통일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붕괴시키려면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합의해서 두 개의 정부를 하나로 합치는 것은 아직 세계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수십 년의 장구한 세월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년의 장구한 세월이 흐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성이 부족하고, 전략이 부족하고, 마음이 비좁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 속도가 EU를 하고 있는 인접 국가들 사이에 관계 개선과 통합의 속도보다 더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일을 포기한다거나 통일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통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맞는 통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론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일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제 지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통일 비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외국에 경제전문가들이 통일 비용을 얘기하고, 통일 비용을 얘기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소가 높게 평가되고, 우리 경제가 낮게 평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 누가 얘기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깨우쳐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북녘 땅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고, 신뢰가 생기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있어 모든 장애가 없어지면, 여러분 그 시장에 좀 투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20년, 30년간 크고 작은 많은 투자의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 국민, 우리 한국에서 경제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제 위협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을 놓고 퍼주기라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결코 밑지는 장사가 아니다, 그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설사 밑지는 장사이면 북한을 그대로 두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웃에 아주 가난한 나라, 가난한 국민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안보의 위험요인입니다. 그래서 설사 수지가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다행히, 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통일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것입니다. 1997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제가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좀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북방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제안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 제 제안은 아무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가슴에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2월 제가 취임사를 할 때 다시 북방경제를 얘기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을 뿐 현실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개성공단의 성공입니다. 개성공단



에서 적자 본 기업이 많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만 어제 그제 들어가서 당장 흑자 보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적자 타령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알고도 배가 아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적어도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26개 기업 중에서 10개 넘는 기업이 지금 재투자나 투자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 돼서 보따리 싸겠다고 하는 기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성공을 기대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하고 남은 본단지 분양에 약 250개 기업이 지금 선정됐습니다. 3 대 1의 경쟁을 거쳤습니다.

제가 북녘 문제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제가 안 그래도 전망이 밝은데, 북측 요소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감을 좀더 크게 가지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녁식사 하실 시간을 아마 조금 뺏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고, 아직 개척되지 않은 더 넓은 시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녁 맛이 조금 더 좋으시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한국 사람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다.' 이런 불평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나 한국 사람은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이어서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고 정부도 대환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학업 성적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민을 많이 오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대강 사는 나라에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독일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독일같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우리 한국 국민에 대해서 그만큼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고국을 떠나서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한국에 계시는 동안 즐겁고 소득도 있는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